



차이나

CHINA Market Watch

마켓 워치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2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中-중앙아시아 5개국,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시에서 정상포럼 개최

- 지난 5월 18일과 19일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시에서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 포럼을 개최했는데, 이는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수교 31년 만에 처음 개최한 6개국 정상 포럼임
*중앙아시아 5개국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2022년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 교역액은 702억 달러(한화 약 93조 원)로 역대 최고치이며, 중앙아시아 국가로부터의 농산물, 광산물, 에너지 수입은 전년 대비 50% 증가했고 중앙아시아에 대한 전기기계제품 수출은 42% 증가함
- 한편 2022년 말까지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에 총 150억 달러(약 20조 원)를 투자했으며, 주로 석유·천연가스, 가공·제조업, 디지털 기술 등 분야에 투자함
- 중국-유럽 화물열차 창안(長安)호는 지난 10년간 중앙아시아 지역 간 운행량이 4,520편에 달했으며 주요 운송화물은 자동차, 식량, 생활용품, 무형문화재 등임. 한편 중국-중앙아시아 천연가스관은 지난해 말까지 총 432억 m³의 천연가스를 중국에 공급함
- 중국-카자흐스탄 휘얼귀쓰(霍尔果斯)국제국경협력센터는 중국이 다른 국가와 설립한 첫 번째 국경간 협력구로 올해 5.1절 연휴기간 관광, 쇼핑 등으로 일간 2만 명이 출입했음

자료원 : 중국신문망

<http://www.chinanews.com.cn/gj/2023/05-17/10008704.shtml>

2 中, 1~4월 외자이용액 지난해 동기 대비 2.2% 증가

-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1~4월 외자이용액은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한 4,995억 위안(한화 약 94조 원)이며, 달러로 계산 시 3.3% 감소한 735억 달러임

- 제조업의 외자이용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4.1% 증가한 1,301억 위안(약 24조원)이며, 이 중 하이테크 산업 외자이용액은 12.8% 증가함. 업종별로 하이테크 제조업, 하이테크 서비스 산업은 각각 37.1%, 6.0% 증가
- 국가별로는 프랑스, 영국, 일본, 한국의 대중 투자가 각각 567.3%, 323.7%, 68.1%, 30.7% 급증함(*자유무역항에 대한 투자액 포함)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투자규모가 1,700억 달러에 달하는 대형 외자 프로젝트 가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고 국가통계국 관계자는 신에너지 산업과 디지털 경제 분야의 제조업 투자가 유망하다고 전했음
 - 4월 9일 테슬라의 슈퍼배터리 프로젝트 체결식이 상하이에서 개최되었고 4월 26일 에어버스(空中客车)항공기전생명주기서비스유한회사가 청두시에 설립되었으며, 5월 8일 미국 GE의료중국(医疗中国)의 의료산업화 프로젝트가 청두시 텐푸국제바이오성(天府国际生物城)에서 가동됨. 4월 말까지 1~6회차 대형 외자 프로젝트에 이미 639억 달러를 투자함

자료원 : 증권시보망

<https://baijiahao.baidu.com/s?id=1766130977056079739&wfr=spider&for=pc>

3 中, 1분기 일본 제치고 세계 1위 자동차 수출국으로 부상

-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의 자동차 수출량이 58.1% 증가한 107만 대로 세계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부상함
- 승용차연합회는 올해 자동차 수출량을 전년 대비 30% 증가한 400만 대로 추산함
- 글로벌 시장에서 칩, 배터리 등 원자재 공급 부족으로 유럽과 미국, 일본 등지의 자동차 기업의 생산량이 감축된 반면 중국 기업들은 공급망이 원활하여 새로운 시장을 선점했음
- 4월 당월 자동차 수출량은 전년 동기대비 1.7배 증가한 37.6만 대이며, 신에너지차 수출량은 8.4배 증가한 10만 대임. 1~4월 자동차 수출량은 전년 동기대비 89.2% 증가한 137만 대이며, 신에너지차 수출량은 1.7배 증가한 34.8만 대로 집계됨

2023년 1분기(1~3월) 중국 자동차수출 상위 10개 기업



자료원 : 제일재경망

<https://www.yicai.com/news/101757612.html>

4 中, 올해 1분기 의료기기 산업 매출 18.7% 증가

- 상하이국가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87회 중국국제의료기기박람회(CMEF, 5/14~5/17)에 GE헬스케어, 지멘스 헬스시니어스, 유웰메디컬(鱼跃医疗) 등 국내외 의료기기 대기업들이 대거 참가함
- 정부의 의료기기 지원정책에 힘입어 의료기기 산업이 빠른 발전세를 보임.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분기 의료기기산업 매출 총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18.7% 증가한 2,368억 위안(한화 약 45조원)이며, 이 중 의료기기 제조업 매출은 23.8% 증가한 1,280억 위안(약 24조 원)으로 고속 성장
- 의료기기협회에서 발표한 세부품목의 시장규모를 보면 1분기 체외진단시제 시장규모는 28.7% 성장한 124억 위안(약 2조 원), 의료영상기기 시장규모는 14.2% 성장한 165억 위안(약 3조 원), 수술기기 시장규모는 12.8% 성장한 124억 위안(약 2조 원), 의료소모품 시장규모는 23.8% 성장한 309억 위안(약 6조 원)임

자료원 : 증권일보망

<http://www.zqrb.cn/finance/hangyedongtai/2023-05-17/A1684255070315.html>

5 中, 건축자재·가구 시장 성수기 진입

- 중국건축자재유통협회에 따르면 올해 대형 건축자재·가구 매장들은 전보다 더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쳤으며 4월 건축자재·가구 경기지수(BHI)가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고 해당 시장은 성수기에 진입
- 대형 건축자재·가구 매장의 4월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60.7% 증가한 1,625억 위안(한화 약 31조 원), 1~4월 누적 매출은 23.3% 증가한 4,832억 위안(약 91조 원)에 달함
-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인 시장 회복세와 더불어 건축자재·가구 시장도 활력을 되찾았으며, 내수 및 소비 촉진 정책으로 올해 하반기 회복세가 더 뚜렷할 것으로 예상함. 또한 1분기 중점 도시의 부동산 시장 회복세도 건축자재·가구 소비 수요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함

자료원 : 중국상보망

<https://www.zgswcn.com/article/202305/202305181608251106.html>

6 中, 약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 중약(中药) 가격도 상승세

- 올해 3월 천연 우황(牛黃, 소과 동물의 담낭에 생긴 담석으로 우황청심환 등 약재로 쓰임) 가격이 kg당 50만 위안(한화 약 9,440만원)에서 80만 위안(약 1.5억원)으로 상승하는 등 중약재 원료 가격 상승에 따라 제약업체는 중약(中药) 가격도 인상시켰음. 업계 관계자들은 중약재 원료 가격 상승 원인을 수급 변화, 약재 품질 관리감독 강화, 자금 투기 등으로 분석함
- 제약업체 편자황(片仔癯)은 5월 6일부터 주력 제품인 편자황 정제의 소매가를 590위안(약 11만 원)에서 760위안(약 14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일부 증권사는 가격 인상 후 판매량이 유지될 경우 올해 기업 매출이 18%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음
- 1분기 중국의 의약품 수출입은 전년 동기대비 16.0% 감소한 504억 달러이며, 이 중 수입은 11.5% 증가한 241억 달러, 수출은 31.4% 감소한 263억 달러임. 이 중 중약(中药类) 수출은 3.4% 증가한 15억 달러, 양약(西药) 수출은 18.9% 감소한 138억 달러, 의료기기 수출은 44.5% 감소한 111억 달러임

자료원 : 증권일보망, 중국매일경제망

<http://www.zqrb.cn/finance/hangyedongtai/2023-05-17/A1684323458721.html>

<https://www.nbd.com.cn/articles/2023-05-17/2829673.html>

7 中, 기업 주문제작 선물 시장규모 빠르게 성장

- 중국 시장조사기관인 아이루이컨설팅(艾瑞咨询), 징둥그룹 및 중국산업발전연구원에서 공동 발표한 '2022년 중국 기업 주문제작 선물 산업백서'에 따르면 기업 주문제작 선물 시장이 빠른 성장세임
- 기업 주문제작 선물 시장침투율은 2019년 17.9%에서 지난해 20%로 상승했고, 시장규모도 2018년 1,151억 위안(약 22조원)에서 2022년 1,820억 위안(약 34조원)으로 성장했으며, 2023년에는 2,205억 위안(약 42조원)에 달할 전망
- 기업 주문제작 선물 유형별로는 비즈니스용이 66%, 직원 복지용이 34%를 차지함. 이 중 비즈니스용 선물은 디지털, 문화·IP·귀차오(国潮) 제품과 생활용품, 사무용품, 가전제품 등이며, 직원 복지용 선물은 생활용품, 식품음료, 식량·식용유·부식품 등임

자료원 : 아이루이컨설팅

<https://baijiahao.baidu.com/s?id=1766104646702922252&wfr=spider&for=pc>

8 中, 올해 코크스 가격 지속 인하세

- 5월 18일 중국내 코크스 기업들은 8회차 가격 인하를 실시했으며, 란저(兰格)철강망에 따르면 허베이성 탕산(唐山)지역 공장들이 제시한 코크스 가격은 톤당 2,050위안(한화 약 38만 원)으로 전일보다 50위안(약 9천원) 하락했고 산시성(山西) 린펀(临汾), 뤼량(吕梁) 지역도 각각 톤당 50위안(약 9천원)씩 하락한 1,900위안(약 36만 원), 1,800위안(약 34만 원)으로 나타남
- 최근 코크스 원료 공급이 늘어나고 철강재 가격 하락세로 철강업체가 코크스 가격 인하로 원가부담을 줄여주기를 희망하면서 코크스 가격이 지속 인하됨. 코크스 가격은 3월 말부터 현재까지 총 7차례 인하되었고 1~2회는 톤당 50위안(약 9천원), 3~7회는 톤당 100위안(약 1.8만 원) 인하됨
- 향후 코크스 가격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업스트림 수요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비록 철강업체의 수익성이 회복되고 있지만 5월부터 남방 지역이 우기에 들어서면서 철강 산업은 성수기에서 비수기로 전환하고 철강 생산량 감소로 코크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함

자료원 : 중국경제망

http://www.ce.cn/cysc/ny/gdxw/202305/19/t20230519_38552509.shtml

9 中 여성소비자, 온·오프라인 소비 잠재력 분출

- 여성 소비자들이 생화, 영유아용품, 화장품 시장에서 온·오프라인 소비 잠재력을 분출하고 있음
- (생화鮮花 소비)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생화 소비자 중 여성 소비자 비중이 61.4%이며, 60% 이상이 월소득 5,000~1.5만 위안(한화 약 94~281만 원)인 중산층 소비자로 나타남. 현재 중국내 생화 전자상거래 종사기업은 총 6.2만 개사로 이 중 2022년 신설된 기업이 2,350개임. 지역별 기업 수 1~3위는 광둥성(1.6만 개사), 상하이시(1.4만 개사), 후난성(3,450개 사)을 기록
- (영유아용품 소비) 2016년부터 두자녀 정책 보급으로 영유아용품 소비가 증가함과 동시에 2021년 기준 온라인 소비 비중이 33.8%로 상승함. 시장조사기관 아이루이컨설팅(艾瑞咨询)은 2025년 영유아용품 시장규모를 4.7억 위안(약 882억원), 온라인 소비 비중을 39%로 추산함. 한편 최근 영유아용품 전자상거래 투자유치 건수는 110건이며, 투자유치액은 70억 위안(약 1.3조원)에 달함. 주로 베이징시, 저장성, 광둥성에서 각각 39건, 33건, 14건 투자가 이뤄졌음
- (화장품 소비) 50~70대 노인과 80~90허우(1980~1990년대 출생자)의 젊은이를 막론하고 여성들의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으며, 미용원 고객 중 중노년 여성이 60%를 차지하고 있음. 현재 중국내 화장품 업체는 총 80.5만 개사이며, 이 중 2022년 신설된 기업이 8.8만 개사임. 지역별 기업수는 1~3위 광둥성(8.3만 개사), 산둥성(7.1만 개사), 장쑤성(6.9만 개사) 기록

자료원 : 증권일보망

<http://www.zqrb.cn/finance/minshengxiaofei/2023-05-10/A1683718667054.html>